

#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에서 빛난 영국문화

## ‘2017 전주시 세계문화주간-영국주간’ 2016 프랑스워크의 성공 뛰어넘어 ‘우뚛’

신사의 나라 영국의 정통문화를 전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전주의 문화를 영국에 소개한 2017 전주시 영국주간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 등 4000여명이 함께 즐겼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 영국주간 행사를 시민과 관광객 등 4000여명이 함께 즐겼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김승수 전주시장과 마틴프라이어 주한 영국문화원장의 축하를 시작으로 성대하게 막을 연 이번 영국주간 행사 중 영국 페이퍼 아티스트인 리치 맥코어 초청 워크숍과 작품 전시에는 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특히, 한옥마을 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영국서커스단 ‘아크로주’의 공연은 2회의 공연에 전주한옥마을을 지나는 500여명의 관객이 함께 공연을 즐겼다. 이 공연은 바니화이트와 제니 바나드 두 배우가 완전한 원형구조의 움직이는 집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세계를 보여주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공연 내내 관객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때론 관객들을 웃음 짓게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게도 만든 아크로주의 공연에 깊이 감동을 받은 한 시민은 직접 만든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 열린 ‘제인오스틴 서거 200주년 기념 북콘서트’에는 소위 제인오스틴 마니아 60명이 시종일관 그녀의 소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영국주간은 백미는 바로 영국의 재즈밴드 ‘롤러 트리오’와 신예보



한옥마을 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아크로주’의 공연은 2회의 공연에 전주한옥마을을 지나는 500여명의 관객이 함께 공연을 즐겼다. 이 공연은 바니화이트와 제니 바나드 두 배우가 완전한 원형구조의 움직이는 집에서 디스토피아적 미래세계를 보여주는 연기를 선보이면서, 공연 내내 관객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컬 ‘시미언 달라스’의 영국재즈팝 콘서트 현장이었다.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영국의 팝과 재즈를 믹스한 ‘롤러 트리오’의 열정적인 연주는 풍남문 광장을 가득메운 수백명의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시미언 달라스’의 공연도 풍부한 성량으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5일간 펼쳐진 이번 전주시 영국주간 행사 중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한 인원은 최소 2,360여명으로, 한옥마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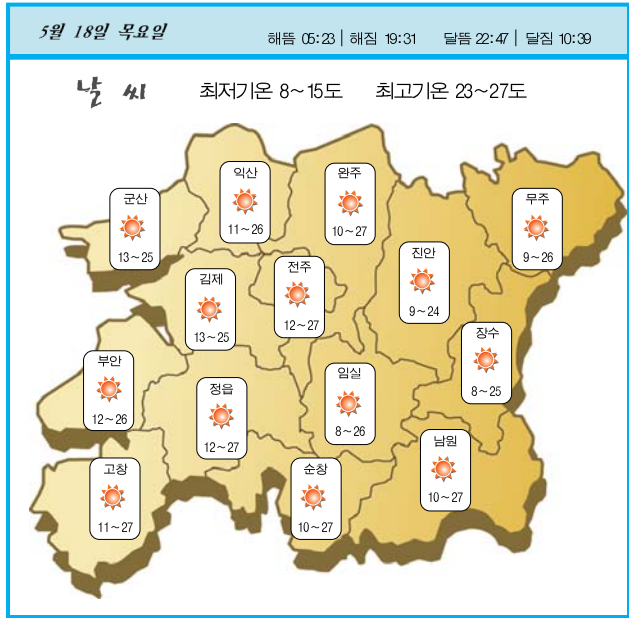
객 등을 포함하면 실제 축제를 즐긴 인원은 4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국주간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럽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영국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고 전시회 관람을 하면서 보낸 특별한 한 주였고,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갖게 됐다”라며 “전주시 세계문화주간이라는 말에 걸맞게 내

년에는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시와 예의를 중시하고 그들의 조상이 이루어놓은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영국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문화행사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발대식

전주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마을발전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7일 전주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노송동과 진북동 원도심과 인후동 등 원도심 4개동 마을계획추진단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원도심 마을계획추진단 합동발대식’을 개최하고,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해오며 마을이 지닌 자원과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계획추진단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주민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계획추진단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 등으로 진행됐다.

마을계획추진단은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계획 사업에 동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사업 홍보에 나서게 된다.

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민들이 마을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프로젝트 매니저 및 활동가 지원, 마을조사결과 분석, 마을의제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계획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가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활동을 중심으로 마을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가는 뜻깊은 일”이라며 “전주시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 생리대 지원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면 위생용품 추가지원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에 청소년들의 건강과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면 위생용품도 함께 보내기로 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지원 대상자 271명에게 면(족사)위생용품과 위생팬티, 면 위생용품의 사용방법과 세탁방법이 담긴 설명서를 추가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일회용 생리대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에 악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과 태아 발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내 저소득 청소년여성들에게 면 위생용품(족사)과 위생팬티 등을 추가지원하게 됐다.

앞서, 시는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보내온 후원금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708

명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리대를 지원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여성들의 위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생애 주기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가정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교육청 사이버 긴급대응반 편성

전북도교육청이 사이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편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확산과 변종 출현에 대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난 14일 오후 6시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한 때 다른 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다.

긴급대응반은 사이버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정보안전담당관(미래인재과장) 총괄하에 상황판제, 사고조사,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하고 특이징후 포착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점의 ‘보급차리’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